

제목: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다”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7절

사도 바울은 아들 된 디모데에게 사역의 처음은 기도에서 부터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혼란한 사역지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은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엎드리고 엎드려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기도입니까?

1. 지경이 _____ 기도입니다.
2. 안타까운 _____의 기도입니다.
3. _____의 기도입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김종헌/김유경 선교사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제이넵/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지난 주 헌금 (6월 25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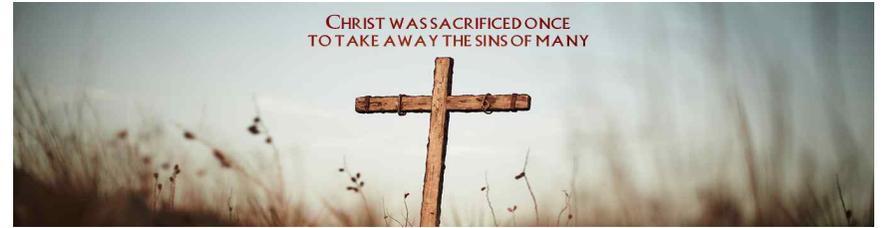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디모데전서 2장 1-7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1 Timothy 2: 1-7 구신약 337 페이지 Presider
- 말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다”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42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요세미티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요세미티를 방문하게 되었다. 지난 오랫동안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번과 같이 물이 많은 것은 처음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겨울에 내린 눈으로 물이 차고 넘쳤다. 하지만 폭포수 물만이 아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너무나 아름답다. 내리 쬐는 밝은 햇볕과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위들이 뿔뿔러서 있는 그곳은 마치 자연이 노래하는 것만 같았다. 또한 뻑뻑이 들어서 있는 나무들은 완전한 조화와 입에서 연방 터져 나오는 탄성으로 말을 잊지 못하게 했다. 누가 여기를 처음으로 발견했을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곳을 처음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놀라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꾸 그곳을 생각하게 되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캠프 장소들 마다 만원을 이룬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바로 그러한 놀라움의 극치를 경험하는 때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만나 주신 그때에 나의 마음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눈에는 생각지 못한 눈물이 앞으로 가렸으며 무릎은 자연스럽게 꿇어지고 입에는 연방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던 것을 기억한다. 그 감격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의 가슴에 뜨거움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더욱 빠져 들고 싶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뜨거움의 감격은 나를 더욱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자연을 보고 감격하여 다시 보고 싶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나를 그 감격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 마치 요세미티에 가장 중심의 그 장소로 가서 서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살아가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요세미티의 감격은 눈과 마음의 감격에 그치는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는 그곳을 빠져 나오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곳에 사랑으로 붙들어 매어 놓으시는 것이다. 그것에 순종하는 곳을 순종이라고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레미야 32장 40-41절)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멋진 곳에 가서 감탄을 하지만 그곳을 떠날 때에 나의 마음의 결론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은혜를 하였음이 내려 주신다. 요세미티는 아름답지만 하나님은 품은 비교 할 수 없이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매일 또한 매 주일이 행복한 휴일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현지인 목회자들의 도움이 잘 연결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중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7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5월 행사

목자 훈련	7월 16일(주)	친교 후
목장 모임	7월 23일 주 중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